

소설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의 번역 양상

—여성 지칭어를 중심으로

홍은영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분석 텍스트
- 2 여성어 및 관련 이론
 - 2.1 여성어
 - 2.2 페미니즘 번역이론
- 3 텍스트 분석
 - 3.1 여성 지칭어-일반 지칭어
 - 3.2 여성 지칭어-직업성 지칭어
 - 3.3 여성 지칭어-품행성 지칭어
- 4 결론

국내 출판시장에서 문학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더욱이, 문학번역의 특성상 번역가의 번역에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번역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상에 발맞추어 번역 역시 재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작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Louisa May Alcott의 소설 『작은 아씨들』의 여성 지칭어와 관련된 표현이 어떤 식으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3종의 번역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번역에서 지나치게 여성성(性)이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물론, 원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성이 드러나는 번역이 오역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번역본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여성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언어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다양한 번역본이 등장하는 문학번역 역시 사회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므로 번역가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반영해야 한다.

국문핵심어: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컷, 여성어, 호칭, 재번역, 다시쓰기

1 서론

1.1 연구 목적

루이자 메이 올컷(Louisa May Alcott)이 쓴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의 인기는 현 시대에도 유효하다. 출판년도와 관계없이 독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은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수차례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뮤지컬을 비롯한 미국 문화 곳곳에서 『작은 아씨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작은 아씨들』이 처음 출간된 19세기에는 이 작품 자체를 당시 미국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었으나, 점차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

한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소설 속에는 작가 올컷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인 ‘조’는 남북전쟁 참전을 위해 집을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서 스스로 가장 노릇을 하며 자신이 남자 아이가 아닌 것에 종종 아쉬움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이러한 캐릭터는 작가의 실제 모습이 반영된 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19세기 미국 시대상을 반영하여 작품을 해석하기에는 작가의 집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작은 아씨들』은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성장소설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 성장소설의 독자층은 성인 외에도 어린이나 청소년들 또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번역은 더욱더 중요하다. 비슷한 예로, 번역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자신의 작품의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다시 출판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금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 『유진과 유진』, 『너도 하늘말나리야』, 『소희의 방』, 『숨은 길 찾기』 등 4편의 작품을 고쳐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애가”, “여자애가”로 시작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이나, “늘씬했다”와 같이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그것이다. 작가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때 접한 사상이나 이론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읽히지 않는 책이라면 모를까, 꾸준히 읽히고 있는 작품들인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생각과 표현을 그대로 놔두기는 작가로서 마음이 불편해 개정판을 내게 됐다”¹고 전했다.

이처럼 문학작품은 시대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가 역시 작가의 집필 의도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독자가 외국어를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모국어로 번역이 된 작품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독자의 모국어로 표현된 아름다움은 모국어 문체와 표현에 대한 폭을 넓히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²을 할 수 있다.

-
- 1 최윤아, 「“책 생명 늘려야죠”... 문학 속 ‘성차별’ 패치 때는 출판계」, 『한겨레』, 2021.9.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1772.html> (접속일: 2021.10.16.)
 - 2 이순희, 「외국어의 환대를 통한 인류의 진보」, 『한국비교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비교문학회, 2019, 132-142쪽.

메리 프린스(Mary Prince)는 저서 『메리 프린스의 생애』(*The History of Mary Prince*)에서 프린스 자신이 노예 가족으로 겪은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카리브어로 남김으로써, 흑인노예여성의 삶을 잘 보여 주었다. 하지만, 프린스의 책은 단순히 흑인노예들의 삶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영어 번역으로 바뀌면서 언어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대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영국의 역사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법적 기록물’로서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들 흑인노예의 삶을 구술한 이 텍스트가 카리브어만으로만 들어졌다면 결코 영국 사회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고, 지속적인 논의로도 이어지지 못했을 것³이다.

1.2 분석 텍스트

어떠한 번역본이든 출판년도에 따라서 사용된 단어나 표현방식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2014년, 2019년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작은 아씨들』의 경우 비교적 최근 번역본이 많이 있어 2011, 2014, 2019년에 각각 초판이 출판된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2019년 번역본의 경우 경향신문의 기사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차별적인 단어나 여성비하 단어에 대해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도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표1>과 같다.

물론, 본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작은 아씨들』의 번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대별로 단어의 번역의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러한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남성이나 여성의 번역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달라지는 사회의 모습과 더불어 출판업계에서의 인식이

3 이경순, 『서사와 문화』, 도서출판 동인, 2016, 35-46쪽.

4 주영재, 「페미니즘 부상에 문학계 고전 재번역 나선다」, 『경향신문』, 2019.8.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31433001&code=960100 (접속일: 2021.9.17.)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칭어의 경우, 어떤 식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에게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작은 아씨들』의 번역본 3종에 대한 비교 번역을 통해 여성 지칭어가 번역본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작은 아씨들 번역본

구분	도서명	작가/번역가	출판사	출판년도
ST ⁵	Little Women	Louisa May Alcott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초판 1868년)
TT1	작은 아씨들	공보경	(주)월북	2019
TT2	작은 아씨들	우진주	동서문화사	2014
TT3	작은 아씨들1,2	유수아	펭귄클래식	2011

2 여성어 및 관련 이론

2.1 여성어

여성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진숙은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여성의 동작이나 행동을 규정하거나 표현하는 어휘를 말한다. 여성을 표현하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중심이 되지만, 여성에 대한 속담이나 관용어, 여성에 대한 통념을 표현하는 문장 단위의 서술어도 여성어에 포함한다”⁶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최근 여성어 연구에 대한 양상은 단순히 언어를 ‘남성 언어’, ‘여성 언어’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 과정에서 특정 성(性)으로 권력의 우위가 보이는 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어와 권력 간의 관계로 그 연구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5 ST는 Source Text(출발어)의 약자이고, 아랫줄의 TT는 Target Text(도착어)의 약자이다. 본 논문에서 ST는 영어 원문을 뜻하고, TT는 한국어 번역본을 뜻한다.

6 서진숙, 「국어 여성어 변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현식⁷은 ‘여성 대상어’와 ‘여성 발화어’로 구분하여 여성어를 분석하였다. 여성 발화어의 경우 ‘음운’, ‘문법’, ‘어휘’, ‘화용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실제 여성들의 발화가 남성들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연구의 특성상 ‘여성 대상어’ 중에서도 ‘여성 지칭어’로만 그 구분을 한정시키고자 한다. 특히, ‘여성 대상어’의 경우 “여성에 대해서만 쓰이는 국어의 여성 어휘”로 정의 내렸고 <표 2>와 같이 구분을 하였다.

표 2. 여성 대상어 구분

구분	용어	예시	
여성 지칭어	일반 지칭어	여자, 아내, 아가씨, 홍일점, 고명딸	
	직업성 지칭어	가정부, 파출부, 미용사, 오피스걸, 해녀	
	품행성 지칭어	여장부, 요조숙녀, 신부, 말괄량이, 자유부인	
	외모성 지칭어	미인, 미녀, 천하일색, 추녀, 박색, 호박	
	성명 지칭어	황진이, 김씨댁, 과천댁, 점순이	
여성 관련어	생애 관련어	과년하다, 몸맡기다,	
	결혼 관련어	처녀성, 시집가다, 시집살이, 소박따다	
	출산 관련어	애서다, 달이 차다, 낳다, 태기	
	놀이 관련어	고무줄놀이, 강강술래, 그네뛰기, 탑돌이	
	가사 관련어	진일, 마른일, 길쌈, 육아, 정화수	
	용품 관련어	화장품, 비녀, 쓰개치마, 땡기	
여성 묘사어	외모 묘사어	전체 외모어	맵시, 곱다, 예쁘다, 아름답다, 요염하다, 꾸미다
		부분 외모어	몸매, 삼단머리, 쪽찌다, 땡다
	성품 묘사어	긍정 성품어	청순하다, 양순하다, 참하다, 야무지다, 섬세하다
		부정 성품어	내숭, 앙큼, 히스테리, 토라지다
	행동 묘사어	긍정 행동어	정숙하다, 얌전하다, 상냥하다
		부정 행동어	아양, 포탈, 앙탈, 종알대다, 새침떨다, 방정맞다

7 민현식,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4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995, 7-64쪽.

2.2 페미니즘 번역이론

전통적인 문학번역이론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번역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전부였고, 연구 역시 충실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서유럽과 북미에서 촉발된 페미니즘 운동은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언어에 대한 연구는 기존 언어를 여성 발전이 가능하도록 언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고다르(Godard)는 번역에 관해서 “페미니스트 담론 이론에서, 번역이란 재생산이 아닌 생산”이라고 주장⁸하였다. 티모즈코(Tymoczko)와 겐츨러(Gentzler) 역시 “번역은 단순히 충실한 재생산성의 행위가 아니라, 고의성과 의식적인 선택, 집합, 구조, 조작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위조, 정보 전달 거부, 모방에 비밀코드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번역가는 지식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⁹고 보았다. 김영신은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원문에 의존적이며, 불완전하고 파생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창작은 남성의 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¹⁰한다. 따라서, 번역이라는 행위가 여성은 열등하며, 남성은 우월하다는 오랜 관념의 일부라는 것이다. 여전히 번역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충실성(faithfulness), 배신(betrayal), 불충실한 미녀(the belles infidels) 등의 어휘 자체 역시 번역에 대한 남성들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처럼 페미니즘 번역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문 다시쓰기(rewriting)을 통해 텍스트를 재창조하는 것을 우선시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들을 통해 억압된 개념이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했다. 셰리 사이몬(Sherry Simon)은 “페미니즘 번역

8 Godard Barbara, *Theorizing Feminist Discourse/Translation*,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p.91.

9 Maria Tymoczko and Edwin Gentzler, *Edwin Translation and Power*,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2, p.21.

10 김영신, 「페미니즘 번역연구의 현황과 특징」, 『통번역교육연구』 제17권 4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9, 61-77쪽.

에서는 작가와 번역가가 모두 참여하는 글쓰기 프로젝트를 지향한다¹¹”고 했고, 이는 번역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원문에 대한 의미전달만 하는 것이 아닌, 가치 전환이나 가치 질서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글쓰기 체계, 젠더질서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¹²할 수 있다.

3 텍스트 분석

3.1 여성 지칭어-일반 지칭어

민현식의 구분에 따르면, 여성 지칭어는 일반 지칭어, 품행성 지칭어, 직업성 지칭어, 외모성 지칭어, 성명 지칭어 등 5가지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지칭어, 직업성 지칭어, 품행성 지칭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 지칭어는 여자, 여성, 아가씨, 등을 일컫기도 하지만 대체로 남성 반의어가 없거나 남자와 여자를 일컫을 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아들 많은 집의 딸을 일컬어 ‘고명딸’이라고 부른다. 사실 ‘고명’의 뜻은 음식의 모양과 색깔을 맞갈나게 보이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 이처럼, ‘고명’은 가족 내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부를 뜻하는 용어로 한 집안에서 ‘딸’이 어떤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뜻¹³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딸 많은 집의 아들을 ‘고명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은 더욱 더 설득력이 있다. 또, ‘대한남아’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대한여아’라고는 쓰이지 않는다. 부계중심적인 가족제도이다 보니 ‘주부, 처녀, 과부, 첩’ 등과 같이 남성들이 많이 부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 우위에 있다 보니 남성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일반 지칭어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원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미지까지 떠오르게 하는 문제가 있다. 아래의 예문

11 Sherry Simon,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mis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2.

12 안미현, 『경제계단으로서의 번역』, HUiNE, 2017, 147쪽.

13 김미현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3』, 보고서, 2013, 259쪽.

(1)~(8)에서는 일반 지칭어를 사용한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ST] During the fifteen minutes that followed, the proud and sensitive little girl suffered a shame and pain which she never forgot. (p.68)

[TT1] 15분 동안 자존심 강하고 예민한 어린이 에이미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과 고통을 맛보았다. (p.146)

[TT2] 다음 15분 동안, 자존심이 강하고 민감한 어린 소녀는 결코 잊지 못할 수치와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p.89)

[TT3] 십오 분이 지나는 동안 그 자존심 세고 예민한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고통과 창피를 견뎠다. (p.151)

(2) [ST] She had not much time for repining, however, for the three young girls were busily employed in ‘having a good time.’ (p.83)

[TT1] 하지만 애니, 샬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오래도록 푸념할 새는 없었다. (p.176)

[TT2] 그러나 메그는 오래 슬퍼할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세 처녀는 ‘즐겁게 지내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p.107)

[TT3] 그러나 메그가 그렇게 푸념할 시간도 많지 않았다. 세 명의 어린 소녀들과 함께 항상 바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p.177)

(3) [ST] and she felt that she was a very destitute and much injured girl, in spite of the new gloves and silk stockings. (p.83)

[TT1] 새 장갑을 끼고 비단 양말을 신었는데도, 메그는 궁핍한 형편을 자각하고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p.176)

[TT2] 메그는 새 장갑과 실크 스타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난하고 상심한 처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p.107)

[TT3] 이제는 자신의 집이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여겨졌고, 자신의 일은 더욱 힘겹게 다가왔으며, 새 장갑과 실크 스타킹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p.177)

(4) [ST] “Poor girls don’t stand any chance, Belle says, unless they put themselves forward,” sighed Meg. (p.95)

[TT1] “벨 얘기로는 가난한 집 여자애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기회를 잡지 못할 거래요.” 메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p.201)

[TT2] “가난한 처녀들은 찾아다니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벨이 말하던데요.” 메그가 한숨지으며 말했다. (p.121)

[TT3] “벨 언니가 가난한 소녀들은 알아서 나서지 않으면 전혀 가망이 없대요.” 메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p.198)

(5) [ST] “Yes, you are right to put it from you. I do not think that good young girls should see such things. They are made pleasant to some, but I would more rather give my boys

gunpowder to play with thanthis bad trash.” (p.341)

[TT1] “그런 건 멀리해야 됩니다. 훌륭한 아가씨는 그런 걸 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글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조카들에게 그런 쓰레기를 주느니 차라리 화약을 가지고 놀게 하겠습니다.” (p.693)

[TT2] “이것은 치워버리는 게 좋겠어요. 정숙한 젊은 처녀에겐 좋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한 오락거리로 만들었겠지만, 아이들에게 이 나쁜 쓰레기를 갖고 놀게 하느니 차라리 화약을 주고 놀라고 하겠어요.” (p.407)

[TT3] “그래요. 저런 잡지는 멀리하는 게 옳죠. 젊은 아가씨들은 저런 것들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난 조카들에게 이런 쓰레기를 읽히느니 화약을 사 주겠소.” (p.192, 2권)

예문 (1)~(5)에서는 ‘gir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래 ‘girl’의 사전적 의미¹⁴는 ‘여자아이’, ‘(젊은) 여자, 소녀, 아가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영영사전¹⁵의 뜻풀이 역시 ‘a female child, from birth to full growth’, ‘a young, immature woman, especially formerly, an unmarried one’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번역 (1)의 경우 [TT1]은 ‘어린아이’, [TT2], [TT3]은 각각 ‘어린 소녀’, ‘소녀’로 번역하였다. 물론, 이러한 번역은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 전혀 오역이 아니다. 다만, 페미니즘 번역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나치게 여성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어지는 번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2)는 [TT1]은 등장

14 모든 한국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네이버 국어사전(<https://dict.naver.com/>)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그 외의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15 영어사전, <https://www.dictionary.com/browse/girl#>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three young girls’에 대한 직접적인 번역을 하지 않은 대신 [TT2], [TT3]은 ‘세 처녀’, ‘세 명의 어린 소녀’로 번역하였다. ‘처녀’라는 단어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 ‘일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함’,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고 그대로임’ 등의 4가지 뜻을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녀’라는 단어가 첫 번째 뜻으로만 쓰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여성재단이 제작한 ‘서울시 성평등 사전’에는 ‘처녀비행’, ‘처녀출판’이라는 말 대신 ‘첫 비행’, ‘첫 출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¹⁶한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속담 역시 처녀에 대한 비유가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사전에서 ‘처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화면 아래에 ‘처녀’에 관한 속담을 볼 수 있는데, 상위에 노출된 속담이 ‘처녀가 늙어 가면 산으로 땀뚝 지고 오르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나’,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성적인 비하를 일컫는 속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번역본에서도 ‘처녀’라는 단어보다는 문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성’이나 ‘여자’와 같이 단어의 본래 의미 그대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단어로 대체하여 번역을 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3)번 번역 역시 [TT1]은 ‘girl’이라는 단어를 아예 번역하지 않았고, [TT2]는 ‘처녀’, [TT3]은 ‘자신’으로 번역하였다. (4)번의 ‘girl’은 [TT1]은 ‘여자에들’, [TT2]는 ‘처녀들’, [TT3]은 ‘소녀들’로 번역하였다. (5)번의 ‘good young girls’을 [TT1]은 ‘훌륭한 아가씨’, [TT2]는 ‘정숙한 젊은 처녀’, [TT3]은 ‘젊은 아가씨들’이라고 번역하였는데 [TT2]의 경우 ‘good’을 ‘정숙’이라고 번역하였다. ‘정숙’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성품과 몸가짐이 조용하고 얌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만 쓰이는 단어로서 뒤에서 논의할 품행성과 관련된 전형적인 여성 지칭어이다.

(6) [ST] “I’m a crotchety old thing, and always shall be, but I’m will-

16 박성민, 「‘여교사·유모차’를 ‘교사·유아차’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연합뉴스』, 2018. 6.29.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9056700004> (접속일: 2021.10.1.)

ing to own that you are right,” (p.285)

[TT1] “난 특하면 짜증을 내는 성격이라서 잘될지 모르겠네. 네 말이 맞는 건 알아.” (p.581)

[TT2] “나는 괴팍한 노처녀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p.343)

[TT3] “변덕쟁이에다 고집불통인 내가 쉽게 변하겠니? 내 말이 옳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럴 기분이 아닐 때는 죽어도 상냥한 말이 안 나오는 걸.” (p.407, 2권)

(7) [ST] “①An old maid, that’s what I’m to be. A literary ②spinster, with a pen for a spouse, a family of stories for children, and twenty years hence a morsel of fame, perhaps, when, like poor Johnson, I’m old and can’t enjoy it, solitary, and can’t share it, independent, and don’t need it. (p.424)

[TT1] “난 ①독신을 살아갈 운명인가 봐. 펜을 배우자로, 작품을 자식으로 삼는 ②독신 작가. 20년쯤 지나면 약간의 명성을 얻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불쌍한 새뮤얼 존슨처럼 다 늙어서 기쁨을 느끼지도 못할 거야. 혼자이니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고 외파로 살고 있으니 굳이 기쁨을 나눌 필요도 없을 테니까. (p.851)

[TT2] “①노처녀. 나는 노처녀일 수밖에 없을 거야. 말 그대로 ②독신녀. 펜을 남편으로 삼고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잔뜩 쓰면서 20년쯤 지나면 어쩌면 약간의 명성을 얻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 불쌍한 존슨처럼 너무 늙어버려 더 이상 명성을 즐길 수도 없게 되겠지. 같이 인생을 즐길 사람도 없을테고.” (p.499)

[TT3] “①노처녀. 이게 미래의 나야. 펜을 배우자로 삼고 자식들 대신 글을 가족으로 삼아 앞으로 이십 년 동안 약간의 명성을 얻겠지. 큰 명성을 얻는다 해도 저 가엾은 존슨의 말투를 빌자면 ‘난 너무 늙어서 그것이 즐겁지가 않고, 혼자이니 그것을 나눌 수 없고, 이미 독립적이니 그게 필요가 없지.’ (p.318, 2권)

(8) [ST] “Then we’ll be old maids,” said Jo stoutly. (p.95)

[TT1] “그럼 혼자 살면 되지.” 조가 용감하게 말했다. (p.201)

[TT2] “그럼 노처녀로 살지 뭐.” 조가 씩씩하게 말했다. (p.121)

[TT3] “그렇다면 우리는 노처녀로 남으면 되지.” 조가 씩씩하게 말했다. (p.198)

예문 (6)~(8)에서는 ‘old maids’와 ‘spinster’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ST] ‘old maids’를, [TT1]은 ‘혼자’, [TT2]는 ‘노처녀’, [TT3] 역시 ‘노처녀’로 번역하였다. 사실, ‘노처녀’에는 단순히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여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 결혼하지 못했거나, 혹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결혼하지 못한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단어이다. 또한, 소설 상에서 화자인 Jo는 겨우 25살이다. 물론, 작가가 소설을 출판한 1868년과 지금의 시대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시대상에 따라 단어의 쓰임이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한정시키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번역 또한 바뀌는 것이 맞다.

‘spinster’ 역시 다르지 않다. 게다가, ‘spinster’라는 단어는 ‘부정 가치어’로 구분되어 ‘미혼녀’, 혹은 ‘경멸투로 신경질적인 여자’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또, 위키피디아의 ‘spinster’ 항목¹⁷의 현재 사용(Current Use)을 보면 이 단어는

17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pinster>

‘just unmarried woman’이라고만 정의함과 동시에 경멸적인 용어를 뜻하는 영어단어인 ‘derogatory term’를 언급하며 ‘spinster’라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네이버 영어사전에서도 구식, 못마땅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old-fashioned’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여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특정 단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3.2 여성 지칭어-직업성 지칭어

직업성 지칭어에는 가정부, 파출부, 비구니, 창녀, 기생과 같은 남성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여성과 남성 모두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성에게만 접두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업과 관련된 단어에 ‘여-’가 붙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두사 ‘남-’이 붙는 경우는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만큼 그 수가 많지 않다. 전통적으로 ‘노동’은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직업군에 여성이 진출할 경우 ‘여’라는 접두사가 붙는다¹⁸.

(9) [ST] “Don’t go to school, I’m a businessman-girl, I mean. I go to wait on my great-aunt, and a dear, cross old soul she is, too,” answered Jo. (p.50)

[TT1] “난 학교 안 다녀. 직장인이야. 말하자면 직장 여성이지. 대고 모 시중드는 일을 해. 상당히 괴팍한 할머니셔.” 조가 대답했다. (p.112)

18 김미현 외, 앞의 책, 347쪽.

[TT2] “학교에 안 다녀. 나는 직업 여성, 아니 직업 소녀야. 고모 시중을 들어 드리러 다니고 있어. 고리타분하고 짜증나지만 그분도 좋은 분이야.” (p.68)

[TT3] “학교는 안 다녀. 말하자면 직장인, 아니 직장 여성이지. 친척 할머니를 돌봐 드리는 일을 해.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정말 성미가 까다로우시지.” (p.123)

(9)번 예문의 ‘a businessman-girl’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TT1]과 [TT3]의 번역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TT2]는 ‘직업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직업 여성’의 경우 단어 자체가 성매매 종사자들과 관련된 표현이 먼저 연상된다는 점에서 대체어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국어사전에 ‘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어문학 여성 주제어 사전에도 ‘직업여성은 노동자와 구분되는 의미에 성적 연상을 일으키는 용어’로 설명¹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ST] continued the perplexed authoress. (p.262)

[TT1] 혼란에 빠진 작가가 말했다. (p.534)

[TT2] 당혹해진 여류작가가 말을 이었다. (p.316)

[TT3] 당혹스러운 여성작가가 말을 이어갔다. (p.63, 2권)

(10)에서는 ‘여류작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uthoress’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류’라는 뜻은 ‘어떤 전문적인 일에 능숙한 여자를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단어로는 위의 예시에서 보는 ‘여류 작가’, 또는 ‘여류 시인’, ‘여류 화

19 위의 책, 347쪽.

가'와 같은 단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성에게는 '남류 작가'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일까? 신지영은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의식이 이러한 단어를 만들었다고 주장²⁰한다. 예를 들어, '선생'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 '여선생'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지만 '남선생'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은연중에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간호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간호사'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남자 간호사', '남간호사'라는 단어는 쉽게 볼 수 있다. 간호사나 선생이라는 직업 모두 '여성'이 더 익숙한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는 탓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남녀의 직업을 구별하는 단어는 배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한국어 문학 여성 주제어 사전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3.3 여성 지칭어-품행성 지칭어

품행성 지칭어에는 긍정과 부정의 뜻이 있는데 여성어의 경우 긍정적인 뜻보다는 부정적인 뜻이 더 많이 있고, 여성어에는 있으나 남성어에는 없는 단어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알가닥', '깍쟁이', '수다쟁이', '새침떼기'와 같은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뜻보다는 부정적인 뜻이 더 많고 남성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또한, 이러한 단어의 뜻은 여성에 대한 행동을 제약하고, 동시에 특정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할 수 있다.

- (11) [ST] “It is one of her aristocratic tastes, and quite proper, for a real lady is always known by neat boots, gloves, and handkerchief,” replied Meg, who had a good many little ‘aristocratic tastes’ of her own. (p.27)

[TT1] “어머니는 고상한 취향을 갖고 계시잖아. 진짜 교양과 예의를

20 신지영, 『언어의 줄다리기』, 21세기 북스, 2018, 171-173쪽.

갖춘 사람이라면 깔끔한 장화와 장갑, 손수건으로 자신을 표현 하니 응당 그래야지.” 메그에게도 자기만의 사소하지만 ‘고상한 취향’이 몇 가지 있었다. (p.65)

[TT2] “그건 엄마의 귀족적 취향 중의 하나야. 그리고 그건 틀리지 않아. 왜냐하면 산뜻한 구두와 장갑, 손수건은 진짜 숙녀의 조건이니까.” 역시 나름대로의 ‘귀족적 취미’를 꽤 많이 지니고 있는 메그가 대답했다. (p.39)

[TT3] “엄마는 귀족적인 취향을 가지셨잖아. 게다가 진정한 숙녀라면 항상 단정한 부츠와 장갑, 손수건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자신만의 많고도 사소한 ‘귀족적인 취향’을 지니고 있는 메그가 대답했다. (p.85)

(12) [ST] “No, winking isn’t ①ladylike. I’ll lift my eyebrows if any thing is wrong, and nod if you are all right. Now hold your shoulder straight, and take short steps, and don’t shake hands if you are introduced to anyone. ②It isn’t the thing.” (p.28)

[TT1] “안 돼. 윙크는 ①교양 있는 행동이 아니야.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눈썹을 위로 치켜올리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고개를 끄덕일게. 이제부터는 어깨를 똑바로 펴고 보폭을 좁혀서 걸도록 해. 누군가 소개를 받아도 악수를 하지마. ②예법에 어긋나.” (p.65)

[TT2] “아냐, 윙크하는 짓은 ①숙녀답지 못해.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눈썹을 약간 올리고, 잘했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일게. 자! 어깨를 펴고 잠깐 걸어봐. 소개를 받아도 악수는 하지 마. ②예의에 어긋나.” (p.39)

[TT3] “싫어. 윙크는 ①숙녀답지 못한 행동이야.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눈썹을 위로 올리고 네가 잘하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일게. 자, 이제 어깨를 곧게 펴고 사뿐히 걸음을 내디더 봐.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받게 되더라도 악수를 청해선 안 돼. ②숙녀답지 못하니까.” (p.85)

예문 (11)과 (12)는 ‘lady’와 관련된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1)의 ‘lady’는 [TT2], [TT3]의 번역에서 보듯 ‘숙녀’라는 뜻의 한국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숙녀’라는 의미의 번역은 문맥상 ‘구두, 장갑, 손수건’ = 교양 있는 ‘여성’으로 한정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TT1]의 ‘자신을 표현’으로 번역하여 굳이 문맥상 ‘lady’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12)의 번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3) [ST] Jo wanted to lay her head down on that motherly bosom, and cry her grief and anger all away, but tears were an unmanly weakness, and she felt so deeply injured that she really couldn't quite forgive yet. (p.75)

[TT1] 조는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슬픔과 분노를 울음으로 토해 내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약함의 표상일 뿐이었다. 지독하게 깊은 상처를 받은 터라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p.159)

[TT2] 조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그녀의 슬픔과 노여움이 씻길 때까지 실컷 울고 싶었으나, 눈물 흘리는 일은 계집아이같이 유약한 짓이라고 생각했고, 또 무엇보다 그녀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p.97)

[TT3] 조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슬픔과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울고 싶었다. 그러나 눈물은 나약한 사람만이 보이는 것이고,
아직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처가 아물지는 못했다. (p.163)

마지막 예문인 (13)번의 ‘tears were an unmanly weakness’의 번역을 보고자 한다. ‘unmanly’의 뜻은 ‘남자답지 못한’, ‘연약한’, ‘계집애 같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TT2]의 번역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unmanly’ 단어 자체에는 ‘남자답지 못한’, ‘계집애 같은’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단어를 그냥 ‘사람’ 혹은 ‘인간’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텍스트의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계집아이’라는 단어 역시 여자아이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4 결론

본 연구는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의 번역본 3종 비교를 통해 실제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에 대한 번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좀 더 쉽게 번역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였다.

표3. 번역 분석 결과

번호	ST	TT1	TT2	TT3
(1)	little girl	어린아이	어린 소녀	소녀
(2)	three young girls	애니, 샬리와 함께	세 처녀는	세 명의 어린 소녀
(3)	girl	번역 없음	처녀	자신
(4)	girl	여자애들	처녀들	소녀들
(5)	good young girls	훌륭한 아가씨	정숙한 젊은 처녀	젊은 아가씨들
(6)	a crotchety old thing	특하면 짜증을 내는 성격	괴팍한 노처녀	변덕쟁이에다 고집불통
(7)	An old maid	독신	노처녀	노처녀
	spinster	독신 작가	독신녀	번역 없음
(8)	old maids	혼자	노처녀	노처녀

(9)	a businessman-girl	직장인	직업 여성	직장인
(10)	authoress	작가	여류작가	여성작가
(11)	a real lady	자신을 표현	진짜 숙녀	진정한 숙녀
(12)	ladylike	교양 있는 행동	숙녀답지	숙녀답지
	It isn't the thing	예법에 어긋나	예의에 어긋나	숙녀답지 못하니까
(13)	tears were an unmanly weakness	눈물은 나약함의 표상	눈물 흘리는 일은 계집아이같이 유약한 것	눈물은 나약한 사람만이 보이는 것

전반적인 번역결과를 보면 [TT1]의 경우 ‘어린아이’, ‘특하면 짜증을 내는 성격’, ‘독신 작가’, ‘혼자’ 등과 같은 단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 혹은 남성의 구분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TT2]와 [TT3]의 경우 ‘괴팍한 노처녀’, ‘여류작가’, ‘소녀들’, ‘숙녀답지’ 등의 단어를 통하여 굳이 원문과 대조해 보지 않아도 여성과 관련된 번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TT2], [TT3] 번역이 오역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번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제에 걸맞는 번역을 찾는 데 있다. 특히 『작은 아씨들』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읽고 있는 고전인데다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역할’이나 여자 ‘다움’을 강조하는 소설 속에서 자라다 보면 자칫 특정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을 향한 지칭어, 직업이나 품행과 관련되어 살펴본 단어 대부분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또한, 번역을 분석하며 사전적 정의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사전적인 정의는 말 그대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일 뿐이다. 기본적인 뜻을 바탕으로 텍스트 안에 녹아들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번역가의 몫이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번역가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단어나 어구나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사회는 서로 간에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 이 때문에, 언어를 통해 그만큼 변화하는 사회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출판물에서 번역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았을 때, 번역가 역시 이러한 사회상을 잘 반영한 번역물을 창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Louisa May Alcott, 『Little women』,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_____, 공보경 역, 『작은 아씨들』, 월북, 2019.
_____, 우진주 역, 『작은 아씨들』, 동서문화사, 2014.
_____, 유수아 역, 『작은 아씨들1, 2』, 펭귄클래식, 2011.

단행본

- 김미현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3』, 보고서, 2013, 259, 347쪽.
신지영, 『언어의 줄다리기』, 21세기북스, 2018, 171-173쪽.
안미현, 『경계횡단으로서의 번역』, HUiNE, 2017, 147쪽.
이경순, 『서사와 문화』, 도서출판 동인, 2016, 35-46쪽.
Godard, Barbara, *Theorizing Feminist Discourse/Translation*, London: Pinter Publishers, 1990, p.91.
Simon, Sherry,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mis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2.
Tymoczko, Maria, and Edwin Gentzler, *Translation and Power*, Univ of Massachusetts Press, 2002, p.21.

논문

- 김영신, 「페미니즘 번역연구의 현황과 특징」, 『통번역교육연구』, 한국통번역교육학회, 제17권 4호, 2019, 61-77쪽.
민현식,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4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

아여성연구원, 1995, 7-64쪽.

서진숙, 「국어 여성어 변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쪽.

이순희, 「외국어의 환대를 통한 인류의 진보」, 『한국비교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비교문학회, 2019, 132-142쪽.

기사

박성민, 「‘여교사·유모차’를 ‘교사·유아차’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연합뉴스』, 2018.6.29.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9056700004> (접속일: 2021.10.1.)

주영재, 「페미니즘 부상에 문학기 고전 재번역 나선다」, 『경향신문』, 2019.8.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31433001&code=960100 (접속일: 2021.9.17.)

최윤아, 「“책 생명 늘려야죠”… 문학 속 ‘성차별’ 패치 떼는 출판계」, 『한겨레』, 2021.9.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1772.html> (접속일: 2021.10.16.)

인터넷 사이트

국어사전 <https://dict.naver.com/>

영어사전 <https://www.dictionary.com>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pinster>

Abstract

Translating the South Korean Novel *Little Women*
: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Language of Women

Hong Eunyong

An overwhelming amount of translated literature has been published, and novels constitute the majority of translated literature. Indeed, the number of translations of certain work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in this context, considering readers is controversial. A literary work can be translated completed differently for readers according to each translator's approach. Additionally,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rework translations in response to changing social conditions. Taking this into account,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analyses of a single work.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ree published translations of Louisa May Alcott's novel *Little Women*.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se feminist translations of the novel were produced. The study found that femininity was excessively emphasized in some translations. Of course, translations that feature femininity more strongly than the original text cannot be said to be mistranslations. However, in cases where more appropriate expressions may have been available, it is necessary to question the clear emphasis on femininity in the translation. Language continually changes alongside society. Everchanging and diverse literary translations serve the important function of reflecting society. Therefore, translators should properly reflect changing social conditions in their translations.

Key words: *Little Women*, Louisa May Alcott, women's language, appellation, retranslation, rewriting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